

“밀리환초 강제동원자 640명 중 635명 전남 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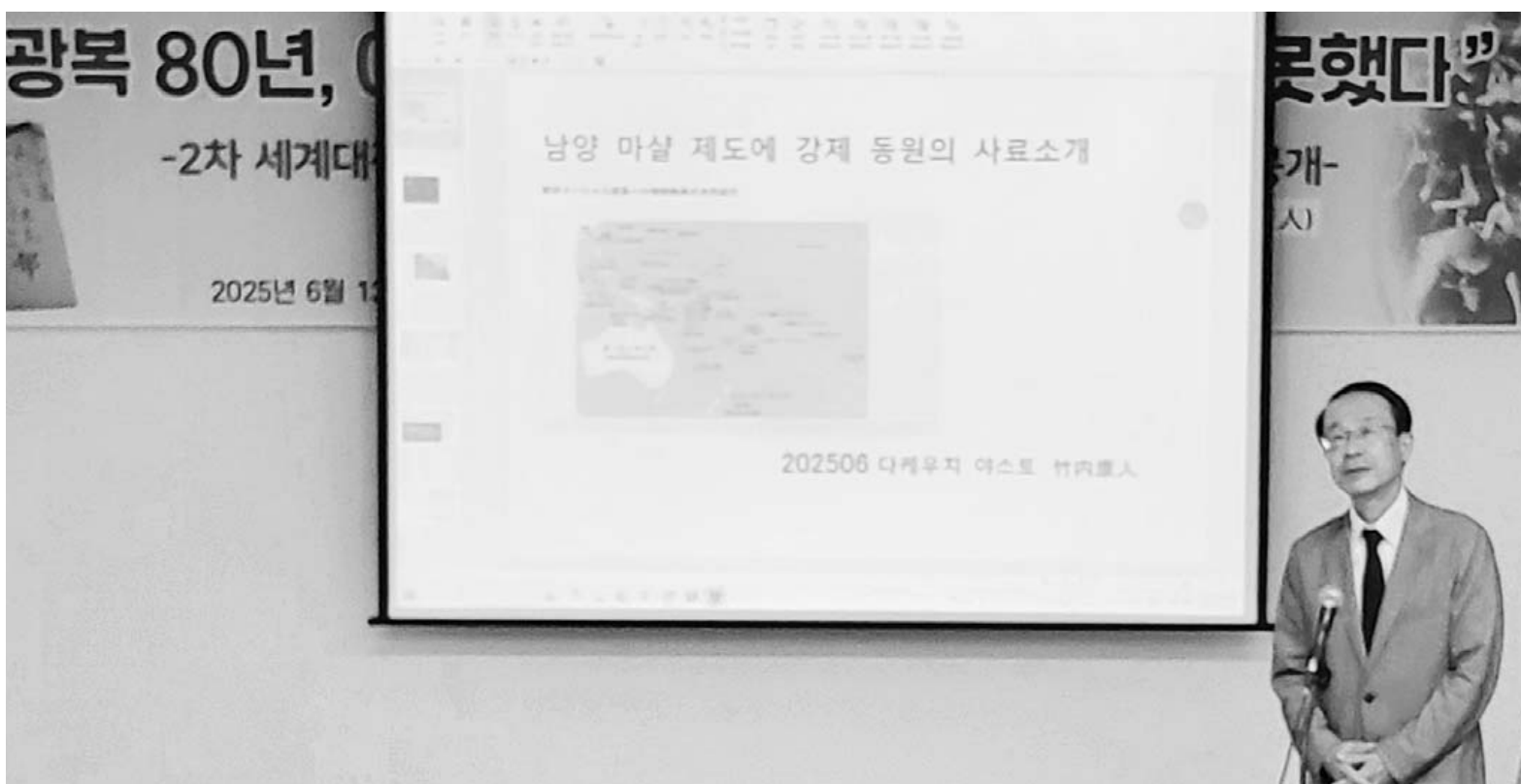
日시민모임, 광주시의회서 간담회
다케우치 야스토씨, 명부 등 공개
과잘레인·루오트 환초 동원 흔적도
“일본 정부, 진상 규명 등 조치해야”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에 의해 남태평양 마셜제도 밀리환초(Mili Atoll·산호섬이 띠 모양으로 연결된 곳)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640명 중 635명이 전남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밀리환초 외 마셜제도 과잘레인·루오트 환초, 괌 등지에 강제동원됐던 조선인 명부도 추가로 공개됐다.

1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13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일본 강제동원 실태를 오랜 기간 추적해온 연구자 다케우치 야스토씨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새롭게 발굴한 밀리환초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를 공개했다.

밀리환초 강제동원 사건은 1945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군사시설 건설을 위해 조선인 수백명을 군속으로 강제동원한 뒤 중노동을 시키고 인육을 먹인 데 대해 조선인들이 저항했다가 집단으로 학살당한 사건이다.



지난 13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기자회견에서 일본인 강제동원 연구자 다케우치 야스토씨가 발언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앞서 다케우치씨는 지난해 6월 밀리환초로 강제동원됐다 숨진 조선인 218명 중 214명이 전남 지역 거주자였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밀리환

초에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총 640명이며, 이 중 99%에 해당하는 635명이 전남 출신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담양, 나주, 장흥, 순천, 해남, 무안 등 전남 각지에서 착출됐다. 다만, 세부 집

계 및 분류는 아직이라 시민모임은 분석 후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이름, 주소, 연락처, 동원 시기, 사망일, 동원 당시 승선한 선박 이름, 미지급 임금 등 세

부 정보들도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다케우치씨는 밀리환초 외에 마셜제도 과잘레인·루오트 환초, 괌 등지에 강제동원됐던 조선인 명부도 추가로 밝혔다.

마셜제도 과잘레인·루오트 환초 등지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는 677명으로 이들 중 다수가 전남, 경기, 경상도에서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괌 지역에 강제동원됐다 숨진 조선인 96명 중 75명 또한 전남 출신으로 확인됐으나 구체적인 지역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케우치 야스토씨는 “자료 상당수가 일본 내에서 여전히 은폐돼 있다”며 “일본 정부는 유족,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식민주의 극복을 위해 진상규명, 유골 반환, 정신 계승이라는 과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광복 80주년이 다가오지만 강제동원 진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일본은 진상 규명, 유골 반환 등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군도 강제동원 희생자인 서조왕금씨의 아들 서태석씨는 “마나면 외국 땅에서 고통받다 목숨을 잃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원통하다”며 “나라가 힘이 없어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일본은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장은정 기자

주말 황산 누출·빗길 차량 전복 등 ‘아찔’

영광 한빛원전 탱크서 191ℓ 새
잇단 교통사고 속 큰 부상 없어

지난 주말 광주·전남 곳곳에서 황산 누출과 빗길 차량 미끄러짐 등 아찔한 사고가 잇따랐다.

15일 광주·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남 오후 8시32분께 영광군 흥농읍 한국수력원자력 한빛발전소 2호기 저장탱크에서 황산 액체가 유출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밸브 차단과 흡착포 사용 등을 통해 황산의 추가 유출과 흡입 등 2차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다행히 황산은 외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 최종 유출량은 191ℓ로 파악됐다.

원전 관련 사고를 조사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확한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같은 날 오전 9시50분께에는 광주 북구 화암동 무등산로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등을 들이받고 전복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



비가 내린 지난 14일 광주 북구 화암동 무등산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전복돼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하지 않았다.

앞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난 13일 오후 8시15분께 함평군 서해안고속도로(목포 방면)에선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멈춰선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화물차 등이 충돌했다.

같은 날 오후 3시33분께 장성군 장성읍 한 도로에서도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 1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단독 사고가났다.

각 사고로 총 7명(중상 1명, 경상 6명)이 다쳤으나,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지난 14일 오후 8시33분께 광주 광산구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부탄가스로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약 6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내부가 소실되면서 재산 피해는 소방 추산 440만원으로 집계됐다.

/안재영 기자

‘뇌물 의혹’ 국회의원 보좌관 보석 인용

국가 보조금 사업 선정 명목으로 뇌물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을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남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A(50대)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끝났기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무죄를 닦고 있는 점, 공무원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 사유가 공판 과정에서 입증된 만큼 불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가 같은 날 보석 인용을 결정하면서 A씨는 곧바로 풀려났다.

이에 A씨는 불구속 상태로 다음 달 23일 재계될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

한편 A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 B씨는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A씨는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었고, 금액도 1억원이 아닌 5천만원이었으며 모두 변제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안재영 기자

‘강제송환’ 허재호 전 회장 내달 4일 재판

뉴질랜드에서 강제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의 ‘탈세’ 혐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을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재판을 오는 7월4일 재개하기로 했다.

허씨는 지난 2007년 5~11월 차명주식 매각 과정

에서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으나, 이보다 앞서 뉴질랜드로 출국한 그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6년 가까이 공전돼 왔다. 한편 허씨는 대주그룹에서 100여억원을 빼내 담양의 골프장에 낚시 혐의(횡령·배임)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도 올라 있다.

/안재영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번호
220603-중-139779